

Propylene, 인상-저지 신경전 치열!

FOB Korea 475-495달러로 25달러 상승 ... Petrocorp은 PP 가동중단

Propylene 가격은 5월16일 FOB Korea 톤당 475-495달러로 25달러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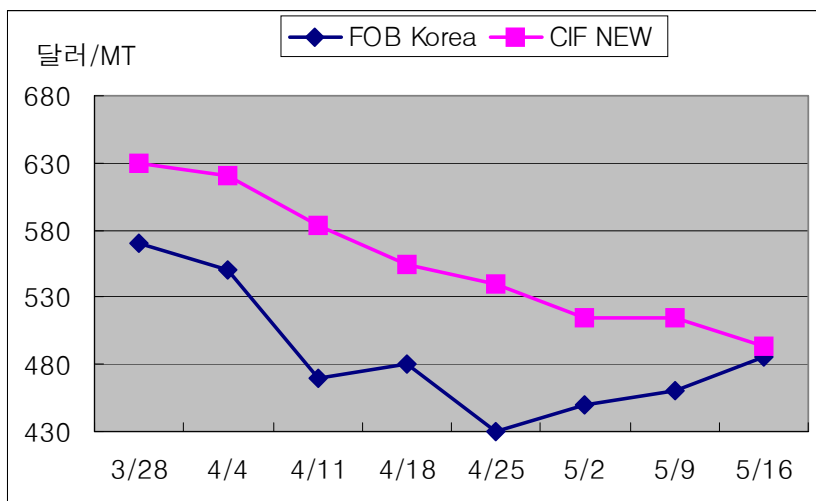
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은 중국의 PP 가격이 Injection 그레이드 기준 톤당 5달러 상승에 그쳐 상승요인이 별로 없는 상태이나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이 가격인상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5월 하순 및 6월 초순 거래되는 한국산 1500톤이 FOB Korea 톤당 475달러에 거래됐고, 490-495달러를 요구한 물량은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이완에서는 6월 거래되는 1500톤이 톤당 460달러에 거래됨으로써 가격상승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다.

동남아에서는 Petrocorp이 CFR 톤당 450달러에 프로필렌을 구매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PP 플랜트 가동을 중단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6월 하순 거래가격을 CFR 450달러로 절충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ropylene 가격추이



다만, 필리핀에서는 5월16일 3000톤이 CFR Philippines 톤당 475달러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의 프로필렌 가격은 5월16일 Polymer 그레이드가 CIF NWE 톤당 485-500유로, Chemical 그레이드 역시 485-500유로를 형성했다.

<Chemical Journal 2003/05/20>